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17일(수) 11:00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3층 회의실

○총무담당관 정웅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간사 총무담당관 정웅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재적위원 12분 중 7분이 참석해 주심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단서에 심사위원회 의원이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회피 규정에 의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 공무국외출장 당사자인 이정린 위원님께서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2월달 회의에 제가 또 딱 그 회의 시간하고 겹쳐서 수술을 좀 해가지고 제가 의사한테 그랬어요.

다음 주 그때 화요일이 었던가요? 수요일이 었던가 월요일이 회의가 잡혀 있는 중요한 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때까지 갈 수 있냐고 그랬더니 불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못 왔습

니다.

송구한 말씀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해가 지났네요. 이제 2024년인데 우리 위원님들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시고 싶은 일 모두 잘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만나뵈서 반갑고요. 음.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도라고 하네요.

특별자치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이 총 2건이 올라와 있어요. 하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 공무국외출장 계획하고 두 번째는 이제 청취 안건인데 이건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및 2024년도 추진계획안입니다.

이것이 2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집에 바로 가지 말고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미리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새해고 그러니까 꼭 같이 식사하시고 이렇게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심사 안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 공무 국외출장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채종우 총무팀장님께서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종우 팀장 안녕하세요? 의회 총무팀장 채종우 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와의 우호협력 체결 및 상호교류 방안 모색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 공무국외출장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경과입니다. 작년 5월 11일 미국 워싱턴주의회 크리스 길던 상원의원을 포함한 대표단 5명이 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의회 차원의 교류와 협력으로 양 지역이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6월에는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의장 특사 자격으로 우호협력 의향을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양 의회 간 긴밀한 협조관계를 만들어가기로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그 후 교류 의제 논의 및 세부적인 일정 협의를 통해 양 의회 간 우호협력 체계를 위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기간은 2월 18일부터 23일까지 총 6일간이며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올림피아, 타코마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총 8명의 대표단을 꾸리게 되었으며 출장자 명단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일정 안입니다. 1일차는 보잉사 공장 및 항공박물관을 견학하여 미국 항공 우주산업과 전북의 탄소산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2일차에는 미국 워싱턴주를 방문하여 주청사 및 주의회 회의 운영을 참관하고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다양한 교류 활동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3일차에는 군산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타코마시 교육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양 지역 간 국제교류 수업 활성화 방안과 실천 계획에 대해 대화할 예정입니다.

4일 차에는 워싱턴 주 최대 도시인 시애틀을 방문하여 경제 문화체험을 한 후 5일차에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번 국외 출장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아시아 국가를 넘어서 다양한 지역의 의회와 교류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지역의 선도 산업 간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문화예술, 청소년 교류 등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동반자로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장 채종우 총무팀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 공무 국외출장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으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장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그 개괄적인 걸 제가 좀 여쭙볼게요.

워싱턴주의 대표단이 5월 11일날 여기 방문해서 올 수 있냐고 이렇게 의사타진을 하고 왔는가요?

○채종우 팀장 네. 맞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거기서 의회 대표단의 의장도 왔어요? 아니면 그 의원들만 왔어요?

○채종우 팀장 의장은 안 왔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아 의원들만.

○채종우 팀장 거기는 부지사가 의장입니다.

○양용모 위원장 그렇죠 미국은 그렇게. 주마다 그것도 틀리죠. 도지사가 의장이고 의회는 그러면 그냥 의원들 부의장은 의원이 하나요? 잘 몰라서 나는 거기

○채종우 팀장 부의장부터는 의원님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다 의원들?

○채종우 팀장 네

○양용모 위원장 어쨌든 그쪽에서 여기 와 가지고 여기 이제 답방 형식으로 해서 가서 서로 교류에 관한 양해각서인가요? 그런 거 체결하는가 봐요.

우호 협력 체결을 위해서 가신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그다음에 환경복지위원장 이병철 의원은 특사인가 봐요?. 특사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직원들 이렇게 보좌해서 갔다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왔다 갔다 하나요?

○채종우 팀장 예. 도청도 지금 도청도 작년 10월달에 협약을 해서 지금 상호 교류를 할 예정이거든요.

같이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양용모 위원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주 위원 이왕이면 우호 협력 해서 한 번 오셨다가 그쪽에서 오셨다가 이번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가서 협약서만 체결하기보다는 갈 때 뭐 좀 협력할 만한 그 안건이라도 좀 가져가서 간 김에 좀 일을 좀 보시고 오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그래 잘해보자 그리고 MOU만 체결하는 형식보다는 가서 실제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도 되고 그랬는데 필요한 부분들 도에서나 의회에서 좀 안건 몇 개라도 가져가서 좀 얘기를 하고 오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양용모 위원장 예. 권고사항으로 좀 넣어주세요. 교류 협력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건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죠.

○김경주 위원 네. 협정서를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의회 운영이나 환경 농업 상업적 배분하는 점에 대해서 뭐 했다 그러는데 이왕에 가시는 길이니까 자주 다니기도 쉽지 않잖아요. 좀 가시기도 좀 준비가 된다면 가서 좀 의견도 들어보고 협력 방안도 확인해보고 실질적으로도 그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심사위원회 회의 권고사항으로 좀 개괄적인 것만 하지 말고 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건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채종우 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으로 회의에 권고사항으로 넣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도, 특별자치도의회 특별자치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이름이 특별하게 길어진 것 같아요.

그 이름만 특별하게 길어지고 아무 실속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 공무국 외출장 계획 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대표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는 아까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청취 안건으로서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및 2024년도 추진 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누가 좀 제안 설명해 주시나요? 네 우리 정웅 총무담당관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정웅입니다. 2023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 및 2024년도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출장 결과입니다. 2023년은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해 국가별 입국 제한이 풀리면서 의원별 상임위별 공무출장을 총 7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먼저 1월 말 아테마스터스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시작으로 2월 자전거, 대중교통 등 친환경 교통수단 벤치마킹을 위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을 다녀왔으며, 3월부터 4월까지의 해외 우수 정책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 개발 및 대안 모색을 위한 상임위별 정책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국토부 공모사업인 지리산

친환경 열차 시범사업의 성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스위스, 독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였습니다.

각각 국외 출장 이후 출장 결과에 대해 집행부 및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도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출장 결과를 게시해, 도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4년도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국익 정책연수 추진 방향은 첫째 공정하고 투명한 국외 정책 연수 운영, 둘째, 현안 문제에 대한 효율적 해결 방안 모색, 셋째로 외유성이 아닌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연수를 실시하고, 넷째로 국외 정책연수 결과의 피드백 강화로 동일 과제 수행 연수단이 인원 및 방문 국가 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전년도와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국제교류 국가를 발굴하여 교류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편중된 국제교류를 추진 중이어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정책 환경 문제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유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미국 워싱턴주의회와 작년 5월부터 양의회 간 교류 방향 및 의제에 대해서 논의해오고 있었으며, 금년 2월 중에

는 우호 협력을 체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와 워싱턴주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매 결연 및 우호협력 의회와 교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치적 문제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일본 이시카와현의회를 7년 만에 방문하여 양 지역 동반성장과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 8월에 이시카와현의회와 대표단이 의회를 방문하여 교류 재개 의사를 재확인하였으나 최근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많은 수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바 피해 복구 상황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방문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와 중국 장수성 간 자매 결연 30주년 기념 교류행사가 양 도성에서 치러질 예정으로 장수성 인대 측과 협의하여 방문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일본 가고시마현의회와 중국 윈난성의회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갈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공무국외출장 추진 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모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나눠서 좀 보게요.

2024년도 출장 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이게 보고가 됐나요?

○정웅 총무담당관 예 됐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본회의에 보고된 결과죠.

○정웅 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제가 이제 저도 여기 의회에 오기 전에 이메일로 보고 쪽 훑어봤는데 그 눈에 띄는 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9대 10대 여기서 의정활동했는데 그때하고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결과보고서가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직원들에 의해서 여전히 작성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솔직히. 다만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명연, 김성수, 서난이가 간 이 결과보고서 있죠? 도심의 주제별 이게 어디예요? 자전거. 시민사회단체도 같이 가고 하는데 이걸 굉장히 그나마도 충실하게 결과보고서가 잘 돼 있어요.

이거 보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그런 생각을 또 했거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흠이라면 똑같은 사진이 세 번이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 이명연 의원이 찍은 사진이요. 근데 이제 물론 그건 뭐 사진을 많이 찍어오지 않아서 그랬다고 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별로나 또는 특정한 활동 부분에서 가면 최소한 이 정도 결과보고서는 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진짜 했어요.

누가 작성을 했든 내가 보니까 직원이 다 작성한 건 아닌 것 같아 상당히 참여한 사람들이 상당히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이걸 한 것 같은데 다만 사진 같은 것은 많이 제출을 안 해서 많이 안 들어와 있는데 그

라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게 이제 한 번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음 연수가 이어지잖아요.

좀 있으면 2024년도 추진 계획 우리가 이제 심의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자료로서 그 이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매년 똑같이 반복해서 의원들은 관심이 없고 직원들이 열심히 작성해서 계획까지 다 짜서 그냥 의원들은 그냥 덜렁덜렁 갔다 오고 나중에 얼마 지나면 어디 갔다 왔는지도 기억도 안 나고 이런 것은 의회가 지향하는 그런 해외 출장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누가 썼는지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그래서 그런 점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 또 질의 있으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주 위원 이렇게 연수 갔다 오셔서 보고서도 작성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도에 정책제안 하셔서 실제로 실행되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양용모 위원장 네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험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일랜드에 휴식 학기제 휴식 학기제라고 요즘 이름을 뭐라고 그가 모르겠네 그 2학년 생애 전환기에 있는 중학교 2학년 우리나라로 치면 중학교 2학년 정도의 아이들은 갔다 무조건 1년 동안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니 마음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라 하고 딱 휘감기질을 해요. 부모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1년 동안 아무것도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부모가 뭐라고 뭐 이렇게 하지도 않고 하여튼 여행을 가고 싶으면 가고 1년 12달 잠만 자고 싶으

면 잠만 자고 그렇게 운영을 해요.

그것을 우리가 좀 도입하자 해서 정책 제안을 하고 조례로 만들고 추진하고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6개월을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끌어내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게 이제 화두가 됐었어요.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또 그때 또 지적인 것이 6개월 동안은 또 이렇게 해놓고 그걸 못 믿는 거예요. 학교도 못 믿고 그 학생을 부모도 학부모도 못 믿어요.

그게 이제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갖고 계속 학생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계획서를 갖고 와라 쉽게 얘기해서 오히려 그게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학생에게는 그럴려면 뭐하러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할래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의회에서 계속 제재를 했어요.

업무보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하면 그건 휴식 학년제가 아니다. 집에서 노는데 무슨 마음대로 한번 인생을 고민해보라고 휴가를 쫓는데 거기다가 숙제를 자꾸 내주면 그것은 절대 그 본래의 취지의 목적과 맞지도 않고 그런다. 실제로 아일랜드를 가보니까 다만 안전과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노출되는 것만 철저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뭐 정책이 잘 반영되지는 않았습지만 그런 식의 연수는 반드시 필요하다. 직접 가서 보니까 우리도 여기 듣는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직접 교육청 방문해서 브리핑 받고 실제로 학교도 가고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연수가 좀 진행된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실제로 해외 연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이런 예는 많

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경주 위원

이렇게 탐색하고 제가 더 전국적으로 되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좀 탐색하는 데 시간을 갖고 이게 그게 제대로 되는지 저도 지금은 애들이 다 커 갖고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서 아쉬운데 조금 가이드를 하고 또 가면 전라북도 차원의 어떤 특기도 되면서 이쪽에서뿐 아니라 좀 특별하게 진행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리고 그게 그냥 무조건 시간을 주는 것도 좋지만 잘하는 놈들은 잘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계획 쓰지 말라 그래도 쓰기도 하고 말아 그러기도 하는데 또 전혀 생각이 없는 애들도 있잖아요.

○양용모 위원장 네 그렇죠

○김경주 위원

지들이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하고자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도 좀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용모 위원장 예 이제 그때도 이제 하나의 예인데

○김경주 위원

직업을 구할 때도 2학년 때 어떤 경험하고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그런 것도 도 차원에서 교육청이나 의회나 도청과 생각해서 지원하는 이런 것까지 좀 배워야 정말 아이들이 제일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고 보고 가서 경험하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양용모 위원장

네 그거 이제 하나의 예를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휴직연도 여기 정확한 이름

도 제가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되니까 2014, 15년도 그 땐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생겨요.

그러면 무턱대고 놀릴 것이냐?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이들이 가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어떤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학교 누구도 터치 안 받고 간접 안 받고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그 노는 아이 정도로 취급 노는 아이 정도 그다음에 말썽꾸러기니까 학교 안 가는 아이 정도로 취급한다든가 이렇게 참 인식부터가 그게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김정은이가 뭐 중2짜리 무서워서 못 못 내려온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생애 전환기에 그렇게 자유로운 어떤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런 걸 이제 많이 하는 거 봐요. 거기에서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있는 거 봐요. 그런 얘기를 하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의회가 해외 연수를 가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어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도 의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게 공인으로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안 가는 것보다는 갔다 오는 게 훨씬 좋다. 그런 말씀도 거듭해서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024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장

저희들의 임기가 6월 30일까지예요. 그래서 그 안에 회의가 또 잡힙니까? 계획이 그 안에 있어요.?

의회에서 지금 해외 연수를 그 안에도 실행한다 이거죠.

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웅 총무담당관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 별로

○양용모 위원장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정웅 총무담당관

지금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상반기라는 구체적인 표현은 안 돼 있는데요.

○양용모 위원장

그거 참고하시고요.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이시카와현을 올해 상반기에 방문한다는 것은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양용모 위원장 이시카와현이요? 그 지진 때문에

○정웅 총무담당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대안으로 지금 중국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장

어렵죠. 그 불난 집에 가가지고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 마치도록 할까요? 저만 얘기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으로써 2024년 제1차 의원 공무국외출